

# 순천광양축산농협 특혜 대출 논란

### 담보도 없이 특정 개인 공탁금으로 28억원 빌려줘 명의신탁 의혹 대출자 소유 부지 고가 매입 의혹도...축산농협 “적법한 절차였다”

순천광양축산농협이 담보도 없이 특정 개인의 공탁금으로 수십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순천광양축산농협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에 따르면 축산농협은 조합원 A씨에게 28억 5000만원을 빌려줬다.

A씨가 지난 3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순천시 용당동 B씨 소유 사우나 건물과 부지(2600㎡) 대금 명목으로, 축산농협측은 대출에 필요한 담보도 없이 수십억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3억)을 냈고 잔금 기한인 7월 말 잔금(28억5000만원)을 치르기 전, 해당 건물주가 사우나 건물·부지를 다른 매매자에게 팔아버린 데 반발하며 지난 8월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부동산 매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축산농협측은 이 과정에서 A씨의 공탁금을 내주

고 관련 약정서만 작성한 뒤 수십억원의 대출을 승인해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축산농협측이 사우나 건물 부지에 농협 마트를 설립하기 위해 건물주 모르게 A씨를 통해 사우나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시도를 했다가 무산됐다는 말이 나온다.

이른바 신탁자(순천광양축산농협)가 매수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부동산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는 모두 수탁자(A씨) 명의로 이행하는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명의신탁이 보통 탈세를 하기 위해서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점 등을 들어 현행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건물주는 사우나를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 한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A씨

가 건물을 축협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지자 잔금을 치르기 전 다른 매수인에게 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순천광양축산농협측은 앞서 A씨 소유의 사우나 인근 부지(5700㎡)를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30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해당 축산농협측은 A씨가 지난 2015~2016년 이 부지를 사들일 때도 13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 입장에서는 축협에서 빌린 돈만으로 15억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셈법이 나온다.

순천광양축산농협 관계자는 이와관련, “명의신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6월 총회와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해당 농협측은 또 “A씨의 사우나 인근 부동산을 비싸게 구입한 것은 주변에 아파트와 개발이 이루어 지기상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 고려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재팬위크’ 기간인 11일까지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내 평생학습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일본의 그림책 작가 이와사키 치히로의 ‘어린이를 그리다’ 전. 시민들이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순천시 제공>

## 11일까지 일본 문화 엿보는 ‘재팬위크’

### 전시·공연·워크숍 등 다채

순천에서 일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일본대사관이 오는 11일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펼치는 ‘재팬위크(JAPAN WEEK)’는 전시·공연·워크숍과 강연·설명회 등을 통해 다채로운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다.

재팬위크는 지난 1998년 한·일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합의한 ‘한·일 공동

선언’과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시작된 문화교류 행사로, 일본대사관이 한국의 지방 도시에서 격년으로 열고 있다.

순천에서는 4가지 특별전시가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등에서 마련됐다. 우선, 고흐, 모네 등 후기 인상주의 거장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지는 일본의 전통미술인 ‘우키요에’ 전시회는 당대 최고 우키요에 작가들의 명작들을 원래의 화려한 색채로 재현한 복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일본의 전통적인 연중행사를 중심으로 생활풍습

을 소개한 ‘일본의 생활풍습전’과 ‘어린이를 그리다-이와사키 치히로전’도 눈길을 끄는 전시다.

이와사키 치히로는 ‘전 세계의 어린이 모두가 평화와 행복을’이라는 바람을 담아 어린이를 주제로 1만점이 넘는 작품을 그린 일본의 대표적 그림책 작가다.

‘한일 영화홍보전단 비교전시회’는 한·일 양국에서 개봉한 동일한 영화의 홍보 전단지 하나를 액자에 담아 비교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일본의 8개 공연팀이 선보이는 길거리 퍼포먼스(8~9일)도 열리며 국립유학 및 위강홀리데이 설명회(8일·순천대)도 열린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흑두루미 생태학교서 자연의 소중함 배워요

## 초·중생 대상 내년 4월까지...서식환경 관찰하고 모니터링

순천만은 국내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 228호) 최대 월동지로, 이달에만 1800마리가 넘는 흑두루미가 날아드는 ‘두루미들의 천국’이다.

순천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흑두루미 생태학교를 운영한다. 미래 세대들에게 흑두루미 서식 환경을 직접 관찰토록 해 순천만 습지의 중요성과 보전해야 할 가치·의미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순천만 일대 인안·도사·해룡초교 학생 50명과 인근 중학생 38명 등은 내년 1월부터 매일 새벽 흑두루미 잠자리를 살피고 동이 틀 무렵 눈으로 날아가는 개체 수를 세는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생태학교는 순천만습지와 동천하구 일대에서 지역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흑두루미들이 겨울을 나고 번식을 위해 돌아가는 내년 4월 초까지 운영된다.

초·중학생들이 생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수한 순천만 일대 환경 자원과 지역사회의 생태계 보호, 서식지 보전 활동을 알아가게 될 것으로 순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두루미들의 최대 월동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일본 가고시마현 이즈미시의 경우 인근 중학생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50년째 진행 중이다.

김원덕 순천시 순천만보존과 담당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알아가면서 보전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7일 모니터링에서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1827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089마리)에 견줘 738마리 많은 수치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 습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흑두루미들. <순천시 제공>

## ‘생태미식도시와 푸드투어리즘’ 10일 심포지엄

생태와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순천형 ‘생태미식도시’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순천시는 오는 1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생태미식도시와 푸드투어리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순천의 맛과 자원을 활용,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태미식도시 추진을 위한 선진 사례와 방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가 ‘생태미식도시 추진 기본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나카가와 준이치 일

본정부 식문화대사도 ‘식문화 교육과 식산업 활성화’에 대해 강연한다. 이탈리아 식과학대학 교수의 ‘미식도시와 푸드투어리즘’ 강연도 진행된다.

순천시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해 순천의 식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미식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생태미식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2017년 서천·군산  
**금강철새여행**  
금강 길목에서 만난 자연 그리고 사람들

2017. 11. 17. [금] ~ 11. 19. [일]  
서천군조류생태전시관/군산금강철새조망대 일원

주최: 서천군, 군산시, 광주시, 경주시  
주관: 서천철새여행행사추진위원회/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  
후원: 환경부